

품명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HS code	8531.10	
관세율(%)	MFN('24)	FTA
	1.3	0



▶ 해당 품목의 對미 수출증감률은 비록 등락이 있으나 '24년 3분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24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316.2%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8531.10)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3,666	52.6
2020	2,158	-41.1
2021	3,517	63.0
2022	5,934	68.7
2023	3,182	-46.4
2023.9	2,403	-55.0
2024.9	10,001	316.2

▶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를 제외한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등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사용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품목인 경보기의 최근 미국 내 對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미
수출동향

(HS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HS 8531.10)의 對미 수출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겪었으나, '24년 3분기 기준 급등함. 특히, 세부 품목 “화재경보기(HSK8531.10-2000)”의 '24년 3분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대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HS code 8531.10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 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총계	5,934	3,182	10,001
1	8531.10-1000	도난경보기	3,000	169	160
2	8531.10-2000	화재경보기	140	671	6,422
3	8531.10-3000	가스경보기	681	444	463
4	8531.10-6000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27	152	2
5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2,086	1,746	2,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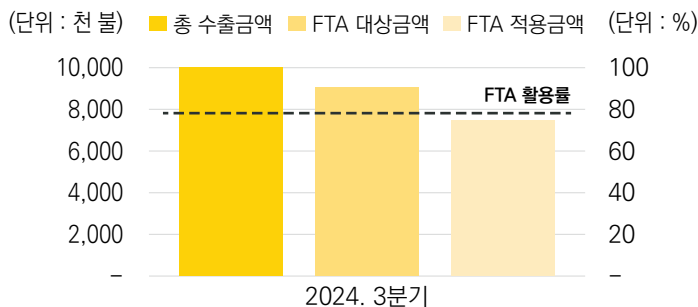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5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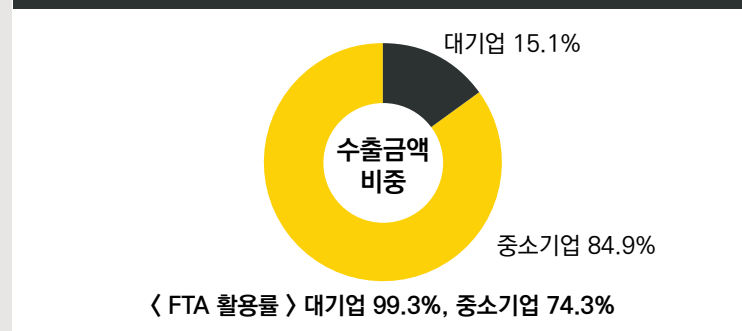
▶ HS 8531.10(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對미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은 다음과 같음
- FTA 활용률 '24년 3분기 78.0%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CTSH임

▶ '24년 3분기 기준, HS 8531.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5.1% 중소기업 84.9%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99.3%, 중소기업 74.3% 임

[HS 8531.1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3~2024)]



[HS 8531.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3분기)]



미국 수입 동향

- ▶ '24년 9월 기준 미국의 HS 8531.10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11위에 위치함
 -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멕시코(49.8%), 말레이시아(19.2%), 중국(6.0%), 대만(4.7%), 일본(3.0%)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약 1.1% 수준임

특이사항

- ▶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집 안의 여러 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자동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의 부상으로 인하여 경보기 또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은 스마트홈 시장 점유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
 - 미국의 도난경보기 시장 규모는 약 44.61억 달러(2023년 기준)이며 올해 예상 시장 규모는 약 48.79억 달러로 약 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화재경보기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큰 약 101억 달러(2022년 기준)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최근 2024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컨테이너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내 도난 관련 이슈가 불거지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 내 도난경보기를 비롯한 경보기 산업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 ▶ 선정품목의 한-미 FTA 특혜관세는 0%이며 MFN은 1.3%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3% 있는 품목이며, 주요 수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은 FTA를 활용할 수 없음
- ▶ FTA 활용혜택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기에 스마트홈에 접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에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품명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HS code	3405.40			
관세율(%)	MFN	RCEP		
		'24	'23	'24
		'25		
	6.5	0	8	7
		6		



▶ 해당 품목의 對중 수출증감률은 '23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4년 9월 기준 전년 동일 분기 대비 32.5%의 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HS code 3405.40)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26,483	22.7
2020	36,078	34.0
2021	49,473	38.8
2022	55,012	15.5
2023	39,218	-36.6
2023.9	29,093	-40.6
2024.9	41,726	32.5

▶ 산업 고도화, 첨단 반도체 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 공정 기술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中
수출동향

(HS 3405.40)

▶ 해당 품목은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HS 3405.40)으로 특게된 세번이며, 對中 수출금액은 잠시 주춤했던 '23년 기준 대비 다시 회복하여 증가하고 있음

한국 연도별 對中 수출동향(HS code 3405.40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총계	55,012	39,218	41,726
1	3405.4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55,012	39,218	41,726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3405.40)

▶ HS 3405.40(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對中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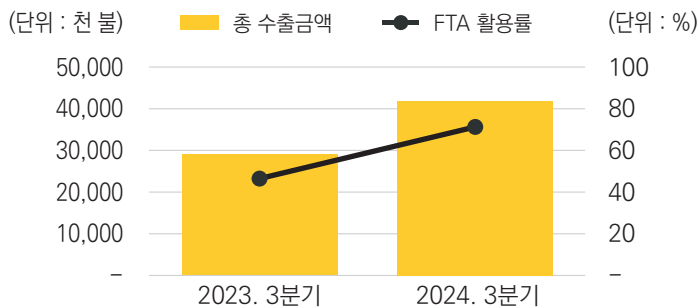
- FTA 활용률 '23년 3분기 46.8%, '24년 3분기 71.2%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중 FTA의 경우 CTH, RCEP의 경우 CTH or RVC 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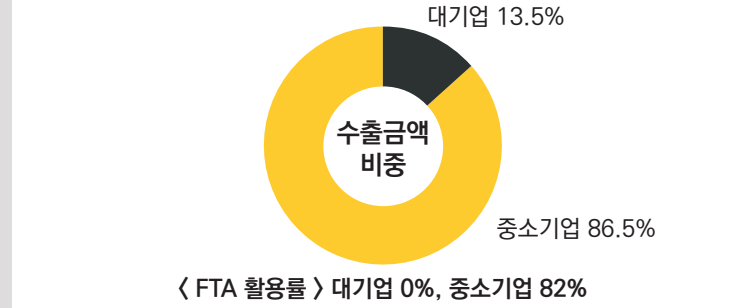
▶ '24년 3분기 기준, HS 3405.40호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13.5% 중소기업 86.5%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0%, 중소기업 82%임

[HS 3405.40 對中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3~2024)]



[HS 3405.4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3분기)]



중국 수입 동향

- ▶ '24년 9월 기준 중국의 HS 3405.40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25.7%), 독일(18.2%), 미국(9.7%), 스위스(6.4%), 프랑스(5.9%)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년 9월 기준 8위 수입국(4.4%)에 위치하고 있음

특이사항

- ▶ 해당 품목(조제 연마페이스트 이하 생략)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항공) 부품 가공 등 고순도·고정밀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정밀 연화제임. 전자전기제품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24년 9월 기준,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은 41.6%로 상위권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중국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로의 수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수출하려는 물품에 신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21년부터 시행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등기방법(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办法) 규정에 따라 수입자는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완료해야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함
 - 신화학물질은 중국기준화학물질목록(IECSC*)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목록에 등재된 물질일지라도 허용된 용도 외의 기타 공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경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즉, 조제 연마페이스트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필렌·프로페인 등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모든 성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 중국기준화학물질목록(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은 중국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을 의미하며,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됨

시사점

- ▶ 선정품목의 한-중 FTA 특혜관세는 0%이며 MFN은 6.5%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RCEP의 경우 단계별 관세철폐 품목에 해당되며, 발효 10년차인 2031년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됨

〈 RCEP(중국) HS 3405.40호의 관세 양허스케줄 〉

MFN	특혜관세율							
	2024년 (발효 3년차)	2025년 (발효 4년차)	2026년 (발효 5년차)	2027년 (발효 6년차)	2028년 (발효 7년차)	2029년 (발효 8년차)	2030년 (발효 9년차)	2031년 (발효 10년차)
4.60%	7%	6%	5%	4%	3%	2%	1%	0%

시사점

- ▶ 동 품목은 추후 원산지간이확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은 제34류 제품 등에 대해 간이확인대상 품목 지정 및 관련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 FTA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 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사료 됨

〈 원산지간이확인제도 대상 품목 〉

- ◎ 간이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FTA 원산지 증명서류(기관발급 C/O,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소명(증빙)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

일반 수출물품	간이발급 대상 수출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수불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조로 원산지 인정되는 품목 <p>(좌 동)</p> <p>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대체</p>

- ◎ '22년부터 시작된 동 제도는 HSK, 표준 품명, 활용 가능 협정, 국내 필수 수행 공정 및 제외 공정을 개발하여 총 326개 품목에 대해 고시 운영 중에 있음('24년 3월 29일 개정)
 - 해당 326개의 대상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2의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별표2의2 내용 일부발췌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

1.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품목분류 확인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합니다.
 - 가.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활용대상 협정	국내 필수 공정
41	3406.00 -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왁스, 향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양초	한-아세안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원재료에 파라핀 왁스 등을 용해하여 심지를 넣고 성형한 후 균혀서 생산

- 하략 -

시사점

품명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HS code	7604.21		
관세율(%)	MFN('24)	VK·AK FTA	RCEP
	10	0	0



▶ 해당 품목의 對베 수출증감률은 '21년을 제외하고 상승세이며, '24년 3분기까지의 누계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24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159.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HS code 7604.21)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10,496	968.1
2020	19,931	89.9
2021	8,670	-56.5
2022	21,827	151.8
2023	24,388	11.7
2023.9	14,304	-11.0
2024.9	37,120	159.5

▶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란 알루미늄을 압연·압출·인발·단조·형조한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 상관없이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봉·선·판·시트 등의 제76류 주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공이란 관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 모양이 아닌 것을 일컫음

▶ 로봇 프레임, 반도체 필터 프레임 등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각종 기계 제조와 건설, 인테리어 장식 등 여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 내 한국산 알루미늄 중공프로파일의 소비 증가로 인하여 해당 품목의 對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대비
수출동향
(HS 7604)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HS 7604)의 대비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HS 7604.21, HS 7604.29)”이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함. 특히,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HSK 7604.21-0000)”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기타 프로파일(HSK 7604.29-9000)”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한국의 연도별 대비 수출동향(HS code 7604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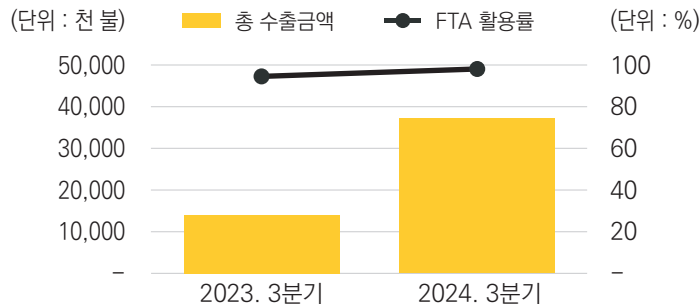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총계	41,440	41,591	58,842
1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98	122	46
2	7604.10-20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33	196	92
3	7604.10-209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타 프로파일(profile)	1,035	60	14
4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21,827	24,388	37,120
5	7604.29-1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기타 봉	5,853	6,465	5,403
6	7604.29-9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기타 프로파일(profile)	12,594	10,360	16,167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76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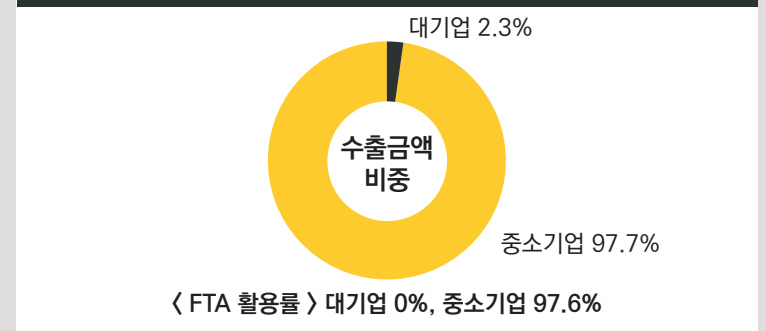
▶ HS 7604.21(중공프로파일) 대비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 FTA 활용률 '23년 3분기 94.1%, '24년 3분기 97.6%로 나타남
 -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모두 CTH or RVC 40% 임

▶ '24년 3분기 기준, HS 7604.2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2.3% 중소기업 97.7%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0%, 중소기업 97.6% 임

[HS 7604.21 대비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3~2024)]



[HS 7604.2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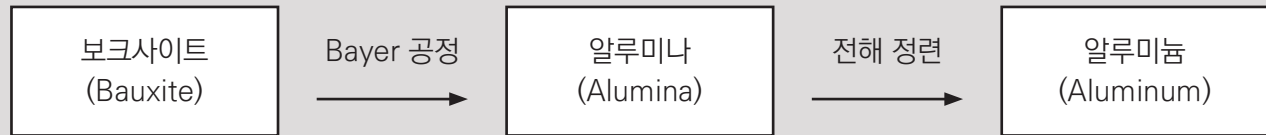
베트남 수입 동향

- ▶ '23년 기준 베트남의 HS 7604.21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83.8%), 한국(12.5%), 말레이시아(1%) 순이며, 이들 국가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
 - * 23년 수입액 기준

특이사항

- ▶ 베트남은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주요 매장지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나 알루미늄 제련 능력이 부족하여 알루미나를 수출한 뒤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형국임

[알루미늄 제조 공정]



- 따라서 베트남 기업들은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스크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 하지만 여러 산업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알루미늄의 특성과 알루미늄 주요 소비국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베트남 알루미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알루미늄 프로파일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외 증가하는 알루미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음

시사점

- ▶ 선정품목의 한-베/한-아세안 FTA와 RCEP 특혜관세는 모두 0%이며 MFN은 10%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 있는 품목이며, 주요 수입국 모두 FTA 활용이 가능하기에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FTA 활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품목임
- ▶ 전기동, 아연, 니켈 등과 함께 6대 비철금속에 속하는 알루미늄은 향후에도 그 쓰임새가 확대될 전망이며 베트남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이 우위를 다투고 있기에 경쟁력 지속을 위한 품질 관리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요구됨

품명	구리로 만든 절연전선·케이블			
HS code	8544.11			
관세율(%)	MFN('24)	RCEP		
		'23	'24	'25
	4.8	3.5	3.1	2.6



선정 사유

▶ 해당 품목의 對일 수출증감률은 등락이 있으나 과거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수출 회복세에 있으며, '24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10.2%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8544.11)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39,874	-1.2
2020	45,094	13.1
2021	67,366	49.4
2022	60,162	-10.7
2023	47,133	-21.7
2023.9	36,008	-23.7
2024.9	39,669	10.2

▶ 일본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관련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해당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요구됨.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구리 전선은 필수적인 부품이며, 한국산 구리 전선의 對일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일
수출동향

(HS 8544.11)

▶ 구리로 만든 것(HS 8544.11)의 對일 수출금액은 올해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HSK 8544.11-9000)”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소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2101.20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총계	60,162	47,133	39,669
1	8544.11-1000	절연도로 피복전선	25,899	13,011	8,315
2	8544.11-9000	기타	34,263	34,122	31,354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5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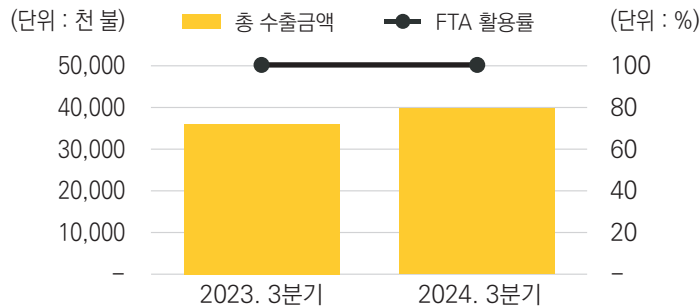
▶ HS 8544.11(구리로 만든 것)의 對일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FTA 활용률은 동일함

- FTA 활용률 '23년 3분기, '24년 3분기 모두 99.9%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RCEP 기준 CTH or RVC 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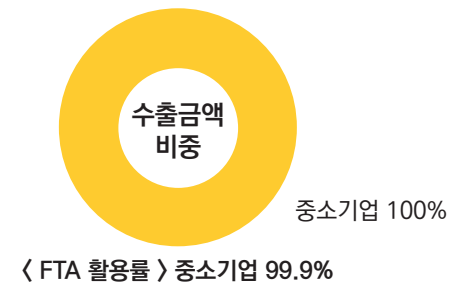
▶ '24년 3분기 기준, HS 8544.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 중소기업 100.0%임

-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99.9%임
- 2024년 3분기 기준 해당 호의 대기업 수출실적은 1건(125불)으로 중소기업 수출실적(39,668천 불)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음

[HS 8544.11의 對일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2023~2024)]



[HS 8544.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3분기)]



일본 수입 동향

- ▶ '24년 9월 기준 일본의 HS 8544.11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34.9%)과 중국(34.5%)으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15.0%), 한국(8.4%), 인도네시아(3.2%)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특이사항

- ▶ 일본 내 구리용 전선케이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구리용 전선 케이블은 전자통신·전자제품 제조·자동차·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리의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수요를 뒷받침할 만큼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구리 가격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까지 구리 가격이 약 75% 상승할 것을 전망되고 있음
- ▶ 일본은 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 소국임
 -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일본 시장에서 HS 8544.11 품목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2018년부터 중국에, 2020년 이후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입이 일부 대체되면서 수출 점유율이 감소함
 - 특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권 국가(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시장 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 일본에 수출되는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일본의 'PSE' 인증을 필요로 함
 - PSE 인증은 일본의 전기용품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인증이자 일본의 전기용품에 대한 의무적인 시장접근제도임
 - HS 8544.11 품목의 경우 특정 전기제품(고위험)으로 분류되어 '다이아몬드형 PSE' 인증 마크를 필요로 함,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PSE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

특이사항

< 일본 PSE 규제 개요 >

- ◎ 인증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 ◎ 인증개요
 -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제품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 주요 검사 항목은 전자기 호환성(EMC)·전기 안정성·과열 화재 및 절연 누전 방지 검사
 - * 제품군에 따라 세부 안전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특정 전기용품의 경우 일본 정부가 승인한 시험소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함
 - 116개의 특정 전기용품(SP : Specified Products)과 341개의 비특정 전기용품(NP : Non-Specified Products)을 대상으로 함
- ◎ PSE 인증 마크 종류

다이아몬드형 PSE 마크	원형 PSE 마크
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에서 지정한 제3자 기관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함	비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자체적인 제조사 검사 후 일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시사점

- ▶ 일본 내 케이블 부족 현상이 단기간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對일 HS 8544.11 품목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확대 전략이 중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품질 향상을 통한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겟팅 할 필요가 있음
- ▶ 선정품목의 RCEP 특혜관세는 3.1%이며 MFN은 4.8%로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7% 있는 품목이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구리로 만든 것(HS 8544.11)”은 RCEP 적용 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발효 11년차인 2031년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됨

< RCEP(일본) HS 8544.11의 관세양허스케줄 >

MFN	특혜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5.80%	4.40%	3.90%	3.50%	3.10%	2.60%	2.20%	1.70%	1.30%	0.90%	0.40%	0%

- ▶ 동 품목은 FTA 단계적 관세 철폐 대상품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RCEP을 적극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품질 향상과 기술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